

최영 장군의 전적지



평화로워 보이는 해안마을 법환동은 천 년 전 고려군과 목호군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역사의 현장이다.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과거의 기억은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법환로 | 서귀포시 법환동 209-6 ~ 서귀포시 법환동 1576(약 1.2km)

최영로 | 서귀포시 법환동 164 ~ 서귀포시 법환동 1541(약 1km)

막속포로 | 서귀포시 법환동 451-2 ~ 서귀포시 법환동 1541(약 1.7km)

월드컵로 | 서귀포시 강정동 231-1 ~ 서귀포시 법환동 1541(약 2.1km)



범섬

법환로 | 법환동

법환로는 대륜동의 한 마을인 법환동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이 길은 법환동의 시가지를 지나 바닷가까지 이어진다. 푸른 바다와 범섬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해안마을 법환동은 고려시대 일어났던 목호의 난과 관련된 지명이 다수 전해오는 마을이다. 야영지였던 막숙, 군사들이 훈련하던 곳이었다는 병디왓, 범섬까지 뗏목을 이은 곳이라는 배연줄이, 활쏘기 연습을 했다는 사장 등의 지명에서 옛날 큰 전투가 일어난 곳이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법환포구

최영로/막숙포로 | 최영 장군과 목호의 난

법환동에는 최영 장군의 이름을 반영한 **최영로**가 있다. 목호의 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고려시대 유명한 장군인 최영이다. 최영 장군은 고려 말에 목호들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제주를 찾았다. **최영로**가 있는 법환동은 고려군과 목호군의 마지막 격전지로 알려져 있다. 목호의 난은 명나라가 원나라를 북방으로 멀리 쫓아낸 후에 고려에 말 2천 필을 바치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고려 조정에서는 그 말을 제주에서 징발하려고 했지만 원나라 출신이었던 제주의 목호들은 자신들이 원나라를 위해 키운 말을 원나라를 공격하는 명나라에게 바칠 수가 없다고 하면서 300필만 바치고 나머지는 거부한다. 그래서 공민왕은 눈엣가시였던 목호들을 이번 기회에 토벌하기로 결심 하고, 최영 장군에게 배 314척에 사병 2만 5600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목호를 토벌하게 한다. 삼별초를 토벌할 때 제주에 왔던 연합군이 1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목호의 난 때는 그보다 두 배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것이다.

한림읍 명월포로 들어온 고려군은 목호군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새별오름에서 고려군을 유인해 전투를 벌이려던 작전이 발각되면서 고려군에 대패를 당한 목호군은 법환동으로 후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최후의 결전지인 범섬으로 들어갔다. 최영

장군은 마지막 전쟁을 위해 범섬이 보이는 법환포구 인근에 군사들을 머무르게 했다. **최영**로 북쪽에 나 있는 **막숙포**로는 고려군이 법환포구에 자리를 잡고 숙영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최영 장군은 배 40척을 몰고 범섬 주변을 에워싸서 압박을 했다. 범섬을 공격하기 위해 배를 연이어 묶어서 다리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범섬이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 상륙하기가 힘들자 많은 연에 불을 달아서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범섬에 숨어있는 목호군을 모두 물리치고 수뇌부가 잡히면서 약 한 달에 걸친 전쟁은 끝이 난다.

목호의 난이 일어나고 40년 후에 당시의 목격담을 듣고 기록한 글을 보면 “우리 동족이 아닌 것이 섞여 갑인년의 변을 불러들였다. 칼과 방패가 바다를 뒤덮고 간과 너는 땅을 가렸으니 말하면 목이 뎀다”고 묘사될 정도로 당시의 전쟁은 처참했고, 제주 사람들 역시 많은 희생을 당했던 전쟁이었다. 목호의 난은 제주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격변기에 벌어진 역사의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며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때의 현장을 알려주는 지명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월드컵로 | 제주 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일주서로와 일주동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서귀포 앞바다 방향으로 **월드컵로**가 길게 뻗어있다. 이 길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경기가 열렸던 제주월드컵경기장이 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주의 오름과 전통 배인 테우를 형상화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지은 경기장이다. 멀리서 경기장을 바라보면 거대한 테우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장 주변에는 다양한 박물관과 테마파크들이 들어서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지금은 제주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팀인 제주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사용되어 축구에 대한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 월드컵경기장